53. [인터뷰]트와일라잇의 한국판 오페라 ‘미호뎐’...후추 같이 톡 쏘는 구미호 사냥꾼 테너 이승묵

“훌륭한 공연을 보고 우레와 같은 박수와 브라보를 보내는 흥겨움, 준비가 부족한 공연 혹은 관객을 감동시키지 못한 공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우~’ 야유를 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성악가들 및 오페라인들의 치열한 준비는 기본이겠죠.”

“오페라는 내 삶과 가족이다”고 말하는 테너 이승묵은 영혼 없는 박수보다는 솔직한 감정 표현이 진정한 오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트와일라잇의 한국판 오페라 ‘미호뎐’**

“‘오페라는 종합예술이다’는 거창한 말을 하기에 앞서, 간략히 ‘후추’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후추’ 양념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고기에 후추를 뿌리면 훨씬 맛있듯, 오페라가 있으면 훨씬 더 맛깔 나는 세상을 경험 할 수 있어요.”

“오페라는 2시간을 잘라낸 영화와는 또 달라요. 감정의 폭이 상당히 크죠. 주인공 남녀가 맨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현실의 시간)3초라면, 연인이 사랑하는 시간은 30분 가량이죠. 또 상대를 매정하게 버리는 것도 10분 안에 이루어져요. 이 모든 감정에 설득력을 입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다채로운 감정을 음악 안에 담아내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팍팍하고 무미건조한 삶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거죠.” 후추처럼 톡 쏘지만 매운 말이었다.

후추 같이 톡 쏘는 매력이 가득한 테너 이승묵이 누오바오페라단의 창작 오페라 ‘미호뎐’에서 구미호 사냥꾼 ‘무오’로 나선다.

제2회 대한민국창작오페라페스티벌에 선정되며 주목받은 서순정 작곡가의 미호뎐은 2015년 쇼케이스를 통해 이미 검증을 마치고 본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오페라 ‘미호뎐’은 작곡가 서순정과 이민희 작가의 협업으로 탄생하였고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받고 있는 이회수의 손을 거쳐 천 년의 정적을 깨뜨릴 치명적인 사랑과 한국 전통의 미를 담아 낼 예정.

일반적으로 아는 구미호 이야기가 아니다. 기존의 드라마 틀에서 벗어나 테너와 소프라노가 아닌, 바리톤과 소프라노의 사랑이야기로 풀어 낸 것. 특히 도화(구미호,소프라노)와 시후(여우 사냥꾼, 바리톤)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펼쳐진다.   
   
한 마디로 “트와일라잇의 한국판 오페라”로 “인간과 구미호의 전쟁과 서로 다른 종족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가 극적인 음악과 함께 전달된다.

극중 이승묵이 분할 무오는 악역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의 이아고 정도로 이해하시는 편이 편할듯하다” 며 “음역대가 레온카발로의의 오페라 ‘팔리아치’랑 비슷해 베리즈모의 극적인 효과가 있는 임팩트 있는 캐릭터이다”고 설명했다.

■ “좋은 오페라는 에너지가 꽉 찬 공연”

오페라는 절대 유명한 특정 성악가 한 두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의 합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래와 노래 사이가 빈 곳을 느끼게 되면 그게 감동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저는 테크닉 적으로나 기량 적으로 그대로인데 데 굉장히 좋은 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쁜 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공연은 어떤 에너지가 꽉 찬 기분을 느끼게 되요. 그렇게 되면 연주자도 관객도 되게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나쁜 공연은 링크가 깨졌다는 인상을 줘요. 연주자와 관객의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관객들에게 익숙한 이태리 혹은 독일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는 일보다, 창작 오페라 작업은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 시험 받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과 오페라발전을 위해 창작 오페라 작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   
   
“초연을 한다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더구나 작품에 확신이 있을 때 는 행복한 일이지요. 세계 어느 나라에 내 놓아도 공감 할 수 있는 뱀파이어와 인간의 사랑 이야기, 한국적인 화성의 낭만적인 멜로디, 화려한 무용과 합창, 그랜드 오페라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요. k-opera 라는 말에 선두가 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묵은 “‘미호뎐’은 스태프와 성악진 모두의 에너지가 꽉 찬 오페라임을 자신했다.”

“작곡가 서순정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제작에 누오바 오페라단의 강민우, 양진모 지휘자, 이회수 연출 등 훌륭한 마에스트로들의 사명감으로 이번 공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 그의 또 다른 꿈은 바리톤 고성현과 ‘토스카’ 무대에서 만나는 것

테너 이승묵은 양정고등학교 재학 시절, 은사의 권유로 성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후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 수료, 스위스 제네바 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와 베르디 레퀴엠으로 유럽 무대에 데뷔했으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창의인성교육센터에서 교육기부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묵은 재능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조희연 교육감의 말을 인용했다. “부잣집 아이들은 없는 재능도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가난한 애들은 자기 재능이 뭔지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한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깨우칠 수 있게, 작은 도움이나마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눠주고 싶어요.”

“무대에서 뭔가를 해 냈을 때 자기 만족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말하는 이승묵은 천상 무대 체질이었다. “제 눈 앞에 있는 관객들이 저를 감동시키거든요.”란 특별한 감회도 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의 오페라를 끝내고 나면 거의 탈진 직전에 이른다. “바로 귀가를 서두르지 않고 대기실에서 잠깐 들어누웠다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를 감동시킨 인생의 오페라는 바리톤 고성현 한양대 교수가  출연한 오페라 ‘토스카’이다. 대학시절 제일 감동적으로 본 오페라가 kbs 개관홀로 올려진 고성현 선생님 주연의 ‘토스카’였어요. ‘와!’란 말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감동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어떤 광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광기란 게 성악가가 어느 선을 초월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즉 자기 발성이나 연기에 대해 걱정을 할 땐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고성현 선생님이 스카르피아로, 제가 카바로도시로 출연하는게 저의 또 다른 꿈입니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창작오페라페스티벌 선정작 오페라 <미호뎐>은 11일과 12일 양일간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된다. 국내 대표 성악가 소프라노 이영숙, 정꽃님, 메조소프라노 조미경, 손진희, 바리톤 강기우, 노대산, 테너 이인학, 이승묵 등이 출연한다.